

# '3퇴'와 평안

제 319기 2018년 4월 29일

2018년 4월 23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276만 명

## 대만 민중이 3억 중국인의 '3퇴'를 성원하다

[명혜망] 2018년 4월 22일, 대만 파룬궁 수련인들이 3억 중국인의 '3퇴(퇴당, 퇴단, 퇴대)'를 성원했다.

연단에 선 파룬따파(파룬궁)불학회 이사장 장진화 교수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9년 동안 중공 사령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을 바꾼 중국인들은 매일 평균 약 10만 명이 실명이나 가명으로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장진화 교수가 말했다. “‘3퇴’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빼앗자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의 기점에서 출발한 심령 구원 운동입니다. 3억 명의 ‘3퇴’ 용사는 중공과 중국이 다르고 애국과 애당이 다르다는 것을 진정하게 인식하고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을 지지하고, 진정한 중화문화를 갖춘 중국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명혜망] 2018년 4월 8일, 나는 출국을하게 되어 노동부문에 관련 수속을 하러 갔는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고함을 치는 한 사무원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무슨 태도가 아래요. 말하는 게 알아듣기도 어렵고 거만하고 난폭하고, 경찰이라니 자질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나는 호기심이 동해 그를 살피며 걸어갔다. 일인즉, 한 아주머니가 퇴직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파출소의 증명이 필요해 사무원이 서신을 보냈지만, 증명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파출소 경찰은 아주머니를 속여 차압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를 뽑고, 죽적을 채집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어야만 증명이 발급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나의 동창은 공안 계통에 있는데, 과거에 파룬궁 박해를 전담했다. 한번은 차를 몰고 파룬궁(수련인)을 잡으러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우물에 떨어져 죽을 뻔했다. 그는 파룬궁 제자가 말하는 선악유보를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른 업무로 전근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 용의자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더욱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주머니는 인자해 보였고 살인강도처럼 보이지 않았다. 피를 뽑다니? 파룬궁? 노교소, 생체 장기적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아주머니가 설마 파룬궁 수련자인가?

나는 다른 카운터로 가서 사무원에게 물었다. “증명 발급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



전 세계는 3억 명의 중공 당, 단, 대 탈퇴를 성원한다.

## 나는 왜 '3퇴'하는가

고, 보통 파출소에서 하는데, 신체검사가 필요 없어요.”

중공이 파룬궁 제자를 박해하면서 납치, 노교, 판결, 유전자 혈액검사를 있다고 들었는데, 파룬궁 제자를 박해하고 파룬궁 제자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 전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3퇴’를 말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다. 만약 오늘이 일이 진짜라면 나는 반드시 탈당할 것이다. 하나는 앞으로 만약 외국에서 공산당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곤란이 따른다는 것이고, 둘째로 인명은 하늘에 달렸다. 만약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파룬궁 제자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하늘이 그를 멸할 것이며 나도 그의 분자일 것이다. 파룬궁 진상자료를 수없이 봤고, 나에게 말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3퇴’를 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에야 해결을 봤다.

그 아주머니를 따라 나와 일부러 길을 묻고 인사를 한 후에 물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파룬궁 수련자이시죠? 파출소에 가지 마세요. 경찰이 아주머니를 해칠 겁니다.”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찰도 사람이고,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장찌민한테 피해를 입었고 속아서 박해에 가담했기 때문에 파룬궁 진상을 알려 구도를 해야 하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야 해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박해받은 가련한 생명이에요.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저한테는 사부님이 계셔요!” 나의 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였는데, 아마 아주머니는 이 늙은이가 우스웠을 것이다. 그리고는

분주히 사라졌다.

파룬궁 제자는 너무나 선량했다. 중공 경찰이 그녀를 박해할 것을 생각하니 리훙쯔 대사님의 제자만이 진(眞), 선(善), 인(忍)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솟아나왔고, 가슴에서는 저절로 하늘을 향해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동창을 찾아가 이 일을 말했다. 그는 오후에 나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 파룬궁 아주머니는 베이징 스징산구 모스커우 파출소에서 인민경찰 왕진더에게 퇴직 관련 증명을 신청했는데, 왕진더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이 일을 미끼로 그녀를 모함해 공을 세우려고 책임을 미루며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백방으로 훼방을 놓으며 아주머니를 왔다갔다 뛰어다니게 하고, 노동국에서 발급한 소개장을 압수하면서 연령이 된 파룬궁 아주머니에게 퇴직 수속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중국의 파룬궁 제자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사람(파룬궁 제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파룬궁 제자)들에게 혈육 간의 정이 없는 것이 아닌데, 퇴직마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사람을 요괴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중공의 순장품이 되고 그에게 팔려 그를 위해 숫자를 채웠을 것이니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나는 스스로 중공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다.

# 19년 전의 '4·25' 1만 명 평화 대 상방

어떤 사람은 1999년 4월 25일의 1만 인 평화 상방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원인으로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공은 1996년 광명일보의 여론공격을 시작으로 사전 모의에 따라 계통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실시했다.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를 시작으로 중공의 장쩌민, 뤄간 패거리는 파룬궁에 대한 주룽지 국무원 총리의 우호적인 서면지시를 묵살했다. 1998년 7월, 공안부는 내부적으로 파룬궁을 'X교'로 규정한 이후 도처에 특무를 파견해 '죄증'을 수집했으나 소득이 없자 또다시 공안을 동원해 연공하는 수련인을 해산시키고 불법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며, 3년 동안 끊임없이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경찰이 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구타하고 체포한 '톈진사건'이 발생하자 파룬궁 수련인 1만 명이 '4·25' 평화 상방에 나선 것이다.

1999년 4월 11일, 중공 두목 뤄간의 동서인 허쭤슈가 톈진 교육대학 잡지에 파룬궁을 공격하는 문장을 싣자 일부 파룬궁 수련인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톈진교육대학과 관련 기관에 실제 상황을 알렸다. 23일과 24일, 톈진시 공안국이 방폭경찰을 동원해 파룬궁 수련인을 구타하고 불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련인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45명이 체포됐다. 톈진 시정부는 베이징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공안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고, 베이징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 상방 경위

4월 25일, 파룬궁 수련인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품고 국무원 신방사무실을 찾아가 법에 따라 평화롭게 상방을 하면서 파룬궁 수련인 석방과 여유로운 수련 환경, 파룬궁 저서 출판 합법화 등을 요청했다. 당시 총리 주룽지는 수련인 대표와 면담한 후 즉시 톈진 공안국에 명령을 내려 체포된 파룬궁 수련인을 석방하게 했고, 국가가 국민의 수



1999년 4월 25일, 1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인이 평화 상방에 나섰다. 이들은 당국을 향해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과 텐진에서 막 발생한 공안의 파룬궁 수련인 폭력 체포 사건을 반영했다. 전체 상방 과정에서 질서가 양호했고, 교통질서가 정연했다. 이들이 떠난 후 땅 위에는 종잇조각 하나 없었고, 경찰이 버린 꽁초까지 그들에 의해 말끔히 치워졌다. 한 경찰은 감탄하며 말했다. “보라, 이것이 바로 덕(德)이다!”

련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재확인했다. 저녁 8시가 넘어 텐진 쪽에서 체포된 파룬궁 수련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련인들은 조용히 해산했다.

4·25 사건은 중공 정권수립 이후 정부와 일반 시민이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를 남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상방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상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일체는 오히려 장쩌민을 극도의 질투와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6·4' 학생의 선혈을 밟고 집권한 장쩌민은 중공의 ‘계급투쟁’이라는 변이된 사유로 문제를 보는 데 습관이 들어있었고, 파룬궁 수련인의 평화 상방이 정부에 대한 신뢰임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당에 대한 ‘시위’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장쩌민은 평화 상방을 ‘중난하이 포위공격’이라며 헐뜯었다. 그리고 1999년 7월 20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 상방은 ‘정치행위’가 아니다

역대 운동 중에서 중공은 누군가를 타격하려 할 때 그에게 먼저 몇 개의 ‘모자’를 씌웠다.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려 하지 만, 날조된 몇 가지 죄명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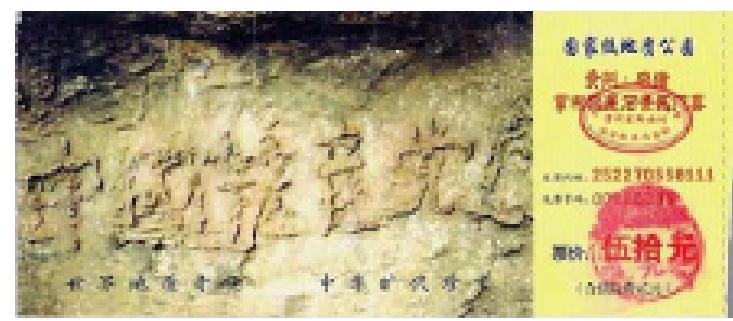
상방하는 군중이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곳이 바로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과 중난하이의 서문이다. 중앙 텔레비전이 방송한 현장 영상에서도 시위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흥분한 군중과 표어가 없었고, 구호도 없었다. 아주 분명하게 상방 군중은 중난하이를 포위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른바 ‘충격’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른바 ‘중난하이 포위공격’이라는 중공의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면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파룬궁 수련인이 '4·25' 평화 상방으로 지키려 한 것은 '진(眞), 선(善), 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본 권리였으며, 정권을 빼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중공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 중공이 박해하는 근본 원인은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

박해 시작으로부터 7년 후 출판된 ‘장쩌민 문선’에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정한 이유가 폭로되어 있다. 장쩌민은 1999년 4월 25일 저녁, 정치국에 보낸 서신에서 파룬궁의 신속한 발전과 민심 응집력에 대해 솔직하게 우려를 표하고, 파룬궁이 민심을 놓고 당과 쟁탈한다며 파룬궁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파룬궁은 불가 수련공법의 일종으로 누구와 민심을 쟁탈

할 뜻이 없고 누구와 싸워 이길 생각도 없다. 그러나 현재 도덕이 사라지고, 당의 관리들이 부패하고 음란한 사회 속에서 ‘진(眞), 선(善), 인(忍)’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파룬궁은 한 줄기 맑은 샘물처럼 사람들의 눈을 트이게 한다. ‘인심이 선을 향하는 것’은 본성이 지향하는 바이며 이것이 이른바 ‘응집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박해의 발단과 ‘4·25’ 평화 상방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종 원인을 명백히 말하면 ‘연공인이 너무 많다’는 것 뿐 아니라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진(眞), 선(善), 인(忍)’을 실천해 일체의 바르지 못한 것이 모두 폭로되자 거짓말과 폭력에 의존하는 중공 정권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대판 싸움을 벌인 것이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